

관객의 소통을 디자인하다

광주문화재단, 내일부터 'RE:MONTAGA' 전 작품에 영화적 요소 반영한 독특한 미디어아트 선배

예술과 미디어의 협업을 통한 자유롭고 실험적인 미디어아트 창의공간인 광주문화재단 '미디어338'에서 상반기 공모 선정작 'RE:MONTAGE(르:몽타주)' 전을 오는 15일부터 개최한다.

2018년 상반기 '미디어338' 전시 참여 작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박성준, 박형철 작가는 'RE:MONTAGE'를 통해 영화적 요소를 작품 속에 반영한 독특한 형태의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서사적 요소와 관객들과 소통하는 쌍방향적 요소가 혼재된 설치작품으로 영화와 같은 이야기를 상영관이 아닌 실제의 공간에서 재현하게 된다.

관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편집되는 등 생동감 있는 작품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대표 작품인 'YOUR FLAME'은 관람자의 위치나 움직임

에 따라 조명과 사운드가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이다.

불꽃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데이터베이스화된 이미지와 사운드(불꽃놀이, 전쟁 폭격)를 통해 관람자가 직접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 경험할 수 있는데, 같은 대상을 보고도 서로 상반된 시선을 갖게 되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근원적 질문을 던지며 평화의 메시지를 역설하고 있다.

박성준 작가는 스위스 제네바고등미술학교(Haute école d'art et de design Geneve)에서 시각예술(arts visuels)과 미디어 디자인(media design)을 수학하고 영화적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인터랙티브 설치, 미디어 퍼포먼스를 통해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와 설치미술, 그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혼란과 괴리의 공간을 재현하고 극대화시킨 그의 작품들은 감상자에게 그 공간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며 동시에 우

리에게 관념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박형철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주로 개념적인 설치와 공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작업의 의미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시아미술관을 기획해 이를 통해 여러 작가들의 전시 기획부터 설치, 공간구성에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방식의 실험적인 공동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미디어338'에서 열린다. 15일 오후 5시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미디어338'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 마련된 북층 전시 공간이다. 1층은 미디어아트 전시는 물론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작품 설치 가능한 옹·복합 전시 공간이고, 2층은 이이남 작가가 기증한 VR체험 작품 '흔들하는 지구'가 설치돼 있다. /김성은 기자

내일 '진도북 그 위에 꿈을 싣고...' 공연

서구 '내드름' 초청 여명·산조춤·한량무 등 선배



광주 서구가 15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제562회 '진도북 그 위에 꿈을 싣고...' 공연을 개최한다.

진도북(춤)놀이보존회 '내드름'은 진도북(춤)놀이(무형문화재 제18호, 39호)이수자 박병주가 1991년에 전남도 무형문화재 진도북놀이(제18호, 양태옥류), 진도설북춤(제39호, 김내식류)를 전승 보존 계승을 목적으로 창단해 현재까지 60여명의 회원들이 전문·봉사·행사공연과 전수 교육 활동 등 각종 문화예술 교육·전수·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에는 내드름 창작작품인 여명(내드름창작작품: 태평소, 승무북, 설장고혼합)을 시작으로 진도북놀이, 산조춤, 한량무, 사물놀이를 무대에 올려 이 지역의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는 내용으로 연출해 관객과 대중들이 함께 느끼고 즐기며 무대를 같이 만들어 가는 신명나는 판을 만들어 볼 것이다.

한편 진도북놀이 이수자 박병주 등 내드름 단원들 17명이 출연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궁금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국악전수관(062-350-4557), 공연단체 박병주(010-9881-1643) 문의하면 된다. /이달호 기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나인승 섬유조형展

21일까지 조각보의 현대적 해석·새로운 조형형식 선배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나인승 섬유조형전을 14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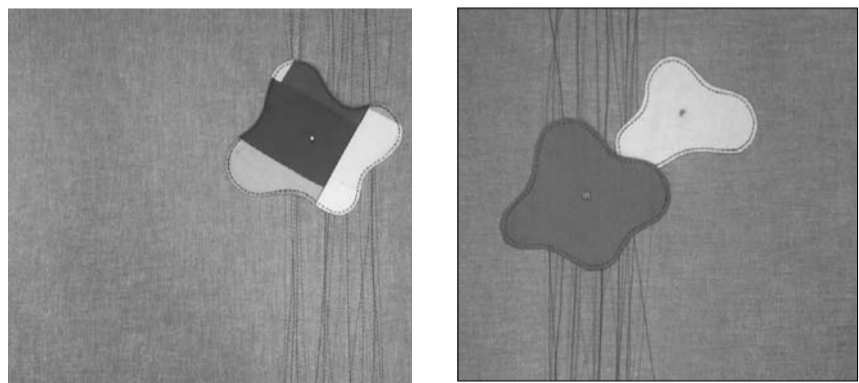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천을 자르고 연결하고 붙이는 작업을 통해 조각보의 현대적 해석과 새로운 조형형식을 엮 볼 수 있는 작품이 전시된다.

조각보는 천이 귀하던 시기에 버려진 천을 재활용해 색색이 조화를 이루어낸 예술적 기량이 돋보이던 작품이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공을 들여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다채로운 컬러와 여러 종류의 천들을 이어 붙이고 겹겹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창의적인 생각들이 더해져 현대에 이르러서는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작가는 작품의 전개과정을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시각적인 실체를 표상과 상징으로 함축하고 있다.

색채의 변화, 위치의 변화, 형태의 변화를 통해 작품의 다양한 이미지



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작품이 공유되고 재생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세번째 개인전을 맞이하고 있는 나인승 작가는 조선대학교에서 디자인

소설가 한강, 또 맨부커상 후보

소설가 한강(48)이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후보에 또 다시 올랐다.

2년 전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로 이 상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대학원에서 섬유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현재 광주전남섬유조형회, 조선섬유조형회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후보 지명이다.

맨부커상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의 '흰'(영문명 'The White Book')을 포함한 13명의 1차 후보(longlist)를 발표했다. /뉴시스

순천 창작예술촌 레지던시 입주작가 공모

26일까지... "지역·특정 장르 등 한계없어"

순천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삶과 예술의 소통창구를 일구어갈 '2018 순천창작예술촌(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26일까지 전국 공모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에게 일정한 작업공간과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해 활발한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며, 순천 창작예술촌 레지던시는 지역과 특정 장르에 한계를 두지 않고 전국 공모를 통해 3명(팀) 내외의 입주작가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입주작가에게는 소정의 창작지원금과 창작스튜디오를 제공하며, 향후 각종 아트 프로젝트와 창작예술촌에서 실행될 융복합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동할 기회도 주어진다. 공모 신청은 이메일(lkkangs@naver.com) 접수만 가능

하며 순천시청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창작예술촌 블로그와 페이스북, 미술계 온라인 플랫폼인 네오룩과 서울아트가이드에서 공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입주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통한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입주작가 선정 시 4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8개월 동안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 공간에 터전을 두고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창작예술촌 레지던시는 예술인들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문화예술 소통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입주작가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고흥군 '책 읽어주세요' 운영

고흥군이 단절되기 쉬운 조손 세대를 연결해주고 지역 아동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키워주며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를 오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는 만 56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3달간 군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했던 '책읽어지도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10회를 이수하고 '책읽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23명으로서 이들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가진 삶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매개체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기회를 얻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선두주자

저희 (유)건양실업은 신기술 개발과 최고 품질의 장비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항상 노력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만족과 신뢰를 위해 항상 A/S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새로운 제품개발과 기존 제품들의 성능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세계 최고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발돋움하겠습니다.

